

이기는 삶

## 잘 들어야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동료와 한 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앞에 앉은 동료가 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편전을 피우고 있으면 기분이 언짢아진다. '뭐야, 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편전을 하고 있어? 사람이 예의가 없잖아.' 하는 생각에 더 이상 그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된다. 듣지도 않는 말을 해봐야 내 입만 아플 뿐이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가까운 동료도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失敗)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공통(共通) 관심사(關心事)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인상(人相)이 좋다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는 첫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날씨나 정치, 경제에

대하여, 또는 같은 색의 옷을 입어서 마음이 통할 것 같든지, 오늘 안색(顔色)이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일이 있느냐는 등의 상대방이 쉽게 응할 수 있는 화제(話題)로 대화(對話)를 시작하면 의외로 상대방도 쉽게 대화에 응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好感)을 갖는다. 별다른 말 없이 잘 들어주지만 해도 상대방은 유쾌한 대화였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없이 가만히 있다고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를 든 동료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關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듣는

데도 요령이 있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되풀이해 준다. 둘째, 중간 중간에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할 것이고, 대화는 즐겁게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적당히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는 "어째서?" "그리고 나서?"라는 식의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빠져들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을 얻는 지혜(智慧)인 이청득심(以聽得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잘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처럼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말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의해서 들어봐야 24초를 넘기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

어주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보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 더 이로운 때가 많다. 우선 다양한 정보(情報)를 듣게 되고, 상대방의 호감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냥 듣기만 해서 안 된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이면 단호히 끊어버리는 분별력(分別力)은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발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이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나쁜 버릇을 버려라”  
You have to get rid of bad habits.

한 사람의 완성자가 나오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다.

▶ The process of being born again into the Holy Spirit was not an easy process until a Victor came out.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고, 참을 수 없는 경지에서도 또 참고 견디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자가 나온 것이다.

▶ Through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hurdles of death and over and over and enduring even in the unbearable state, the Victor was born.

그런고로 여러분들도 승리제단에 그쳐 왔다갔다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신경질부터 버려야 된다.

▶ Therefore, you, too, should not just come and go to the Victory Altar. A person who is good at nervousness should get rid of nervousness first.

남의 흉을 잘 보고 남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된다. 이간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한다.

▶ A person who has a habit of attacking others by looking at other people's flaws should abandon it. A person with a habit of driving a wedge between people should have a gag in his mouth.

나쁜 버릇을 버려야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 The old person will die only when the bad habit is abandoned. That is how you will be born again into the Holy Spirit. It can't happen without effort.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세상 말로 남의 다리 긁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 If you only hear good words and don't put them into practice, you end up scratching other people's legs with the world's words.\*

by Alice

## 영적 상징과 꿈 <17>

###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4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모세와 하나님이 호렘 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빼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직접 묻고, 그 답을 듣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을 독대(獨對)하는 이 장면은 성경은 물론 인류의 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그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자신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보로 오신 하나님

“나는 네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6)



<가시뿔 속의 하나님, 마르크 샤갈>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일종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기에 앞서 계보 내지 족보를 나열하며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첫째로, 단절된 시간과 공간에 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각 인물들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이 마치 배경과 주인공처럼 대비되면서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배경인지는 보는 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자(作者)의 눈에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영적 영웅들이 도드라져 보일 것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전면에서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화두(話頭)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부대사(傅大士)가 노래한 아름다운 계승(偈頌) '교류수불류(橋流水不流)' 즉, '흐르는 것은 다르이지,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처럼 말합니다.

이 선시(禪詩)에서 강위에 세워진 다리는 인간과 인간이 구축한 인간의 세계를 의미하며, 물은 하나님 내지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다리의 입장에서 물(水) 즉, 하나님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덧없이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와 그 위의 인간들입니다.

위 장면들은 누구의 시점이나, 누가 보느냐, 즉 주체영이 누구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인간이, 하나님에겐 하나님이 보입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개별 개체로 나누어 보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갇힌 개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점, 한마디로 인간적 마귀적 관점일 뿐입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개별 존재들의 흥망성쇠가 먼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선 그저 하나의 시간, 하나의 존재로 즉 있었을 뿐입니다.

최제우 하나님은 이 이치를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라 설(說)했습니다. 즉, '간 적이 없으니, 돌아올 것도 없는 도리(道理)'라고 말이지요.

기존에는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를 무(無) + 왕(往)불복(不復)으로 잘라 해석해왔습니다. 즉,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 반복 순환하는 섭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지요. 이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는 표층(表層) 일면의 진실

만을 담고 있습니다.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는 무왕(無往) + 불복(不復)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애초에 간 적이 없으니(無往), 돌아올 것도 없는(不復) 도리(之理)'라 보아야 그 진의(真意)가 드러나게 됩니다. 존재의 중심, 마음의 본자리, 우주의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의 신이 자리 잡고 있어 떠난 적이 없으니 돌아올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은 이제 그대로 여기에 있어 보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여러 의인(義人)들이 갔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선 간 적이 없으니 돌아올 리도 없는 존재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 자신인 채로 존재할 뿐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인간 모세를 향한 첫 일갈(一喝)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입니다.

'of'

둘째, 앞서 인용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구절은 영어로는 'God of Abraham'입니다.

여기서 of 를 소유격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f 는 소유격이 아닌 동격 전치사로 보아야 그 진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존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풀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존재, 타자(他者)로서 머물 뿐입니다. 그리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시고 섬기던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of' 를 동격 전치사로 보아 'God of Abraham'을 '아브라함 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풀게 되면 비로소 그 숨겨진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인(印)을 떼 의인이 곧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바로 인(印)을 떼 의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이삭이라는 하나님, 야곱이라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며 "나는 단(斷)이라는 하나님, 박태선이라는 하나님, 조희성 이간자라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영모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이간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번째 인을 떼자, 박태선 영모님이 스스로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한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모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인간일 뿐입니까?

7번째 인을 떼 이간자는 완성의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완성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인간일 뿐입니까?

흐르는 것은 강물입니까? 아니면 다리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빌어 조희성 이간자가 설명하신 하나님의 계보를 통한 완성의 하나님의 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와 구분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실제 하나의 존재라는 인신합일(人神合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 인(印)을 떼고 등장한 하나님

셋째, 이간자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자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간자에게서 성경의 일곱 나팔 부는 천사가 곧 일곱 인(印)을 떼는 자이며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印)을 가지고 올라오는 의인'(요한계시록 7:2)이 바로 일곱 인(印)을 떼는 어린 양, 이간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인(印)을 떼자이며 이삭이 두 번째, 야곱이 세 번째 인(印)을 떼자이다."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간자의 말씀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한 짝을 이루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은 더 이상 단순히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印)을 떼 의인의 계보, 하나님의 신의 계보를 드러내는 천기(天機)를 품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간자에게서서 또한 야곱의 아들 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4번째 인(印)을 떼 자이며, 게다가 단의 정체가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 단군(檀君)이란 사실도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야곱에 이어 4번째 인(印)을 떼 자의 정체가 '단(斷)'이란 것을 밝힌 것만으로도 이간자가 모세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란 증거로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겠죠.

봉인을 한 하나님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에 이어 4번째 인(印)을 떼 자의 존재를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간자에게서 단(斷)에 이어 5번째 인(印)을 떼 박태선 영모님, 6번째 인(印)을 떼 해와 이간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印)을 떼 아담 이간자에 이르러 완성된 하나님의 신의 계보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어찌하면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일입니다.

마귀의 신이 아무리 '내가 이간자다. 내가 구세주다.'라며 준동하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흐름과 계보를 모르는 한, 그 덩미를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계보를 타고 진행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 옛날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印)을 떼시고 완성의 이간자가 되어 이렇게 우리 앞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 5편에 계속 -

金澤 / 의사, kimtaek8@nate.com